

라닉스-헬스맥스

국내외 헬스케어사업 협력 및 사업개발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양사 솔루션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사업 및 B2B 헬스케어 사업 확대 예정
- ▶ “단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AI 기반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아갈 것”



<<좌: 라닉스 최승욱 대표이사, 우:헬스맥스 이상호 대표이사>>

<2024-09-06>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라닉스(317120, 대표이사 최승욱)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헬스맥스(대표 이상호)와 함께 공공사업 및 B2B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6일 라닉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을 통해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라닉스 최승욱 대표 및 헬스맥스 이상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요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협력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각자 보유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헬스맥스는 바이오그램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스 연계와 건강데이터 활



용에 집중하고 라닉스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체중계, Radar 센서 등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헬스맥스 바이오그램 플랫폼 연동을 통해 서비스 사업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사업 및 B2B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다.

최승욱 라닉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맥스사의 바이오그램 플랫폼에 탑재 연동되는 라닉스의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헬스케어 및 개인화 건강관리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비접촉 센서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라닉스와 함께 상호 협력할 헬스맥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바이오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그램’은 오프라인 건강관리 부스 ‘바이오그램 존’에서 측정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체성분, 스트레스 등 개인의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용 앱을 통해 개인은 건강 리포트 및, 운동, 식단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의 보건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삼성전자 11개 사업장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스타필드, 현대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및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약 120개의 사업장에서 임직원 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